

정촌가요특구 사계절 관광지 탈바꿈

정읍시 활성화 용역 보고회 실감형 콘텐츠·관광자원 개발 체류형 관광지 거듭나기 박차



정읍시 신정동에 2019년 개관한 정촌가요특구 전경. 콘텐츠를 강화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정촌가요특구가 정읍을 대표하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촌가요특구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해 정읍시의회 이상길 부의장과 정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용역기관인 사단법인 돌레 연구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지난 3월 착수한 이번 연구용역은 정촌가요특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정촌가요특구는 백제가요 '정읍사'의 고장 정읍시가 2019년 10월 신정동에 개관한 시설로 가요전시관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사업 유지단계에서부터 콘텐츠보다는 시설 위주로 추진·건설돼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정촌가요특구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장산국립공원과 내장산 리조트를 연계해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와 사업을 개발해 사계절 관광지로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은 ▲실감형 콘텐츠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정촌가요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사업 발굴 ▲특구 내 시설물 운영관리 및 활성화 방안 ▲시설부지 및 민자유치 분양 부지 활용방안 제시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마케팅 및 홍보전략 수립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중장기적 사업계획 논의와 함께 향후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했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최종 수정·보완을 거쳐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정촌가요특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를 기반으로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구체화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지역농가 농산물 가격하락 손실 100% 책임진다

대파·가을배추·무 등 7개 품목

익산시가 지역 주요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 전액을 보전해준다. 익산시는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 보전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지원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으로 품목별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와 기후 변화, 농산물 수입 개방, 농업경쟁비 증가 등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농가 소득 감소가 이어짐에 따라 추진됐다. 지원 대상 품목은 마늘, 노지감자, 생강, 견고추,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 등 7개 품목이다. 현재 노지감자, 생강, 견고추 3개 품목에 대한 신청·접수는 완료됐으며, 오는 9월부터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 마늘 4개 품목의 신청·접수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지역농협(원협), 통합마케팅조직(익산탐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품목당 1000㎡(300평)에서 1만㎡(3000평)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며,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출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해당 품목 가격하락 시 신청한 차액 보전은 오는 2022년 지원된다. 박중수 익산시 미래농정국장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은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적 성격으로 차액 지원폭이 확대된 만큼 많은 농가가 신청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시 10개 도서지역 급수상황 긴급점검

군산시가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개야도 등 10개 도서 지역의 급수상황 긴급점검 전수조사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강수량은 88mm로 이는 전년 평균 강수량(178mm) 대비 51%로 줄었다. 이번 점검 도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개야도·죽도·명도 등 3개 도서와 한국수자원공사(전북본

부)가 위탁약으로 관리하는 비안도·관리도·어청도·연도·방축도·두리도·말도 등 7개 도서다. 도서지역의 상수원 확보 상태를 비롯해 급수관로 누수 여부, 지하관정 작동상태, 비상 급수시설 이상 유무 등 총 32개 급수시설 전반을 점검할 결과 대부분 시설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비안도 급수시설의 경우 우수율이 전년 대비 낮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

초 마련한 '풍수해대비 수돗물 비상급수 세부실행 계획'에 맞춰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봉곤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은 "해마다 풍수해 대비 수돗물 비상급수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도서지역에 비상급수를 위해 관련 기관(한국수자원공사, 소방서 등)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상시 주민 선박, 급수 선박, 행정 지도선에 의한 비상 급수지원 등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도서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남원시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남원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기계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의 노후 농기계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등이다.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정상 가동되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트랙터는 100만~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1310만원이다.

단 농기계에 부착된 선택품, 부속작업기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농기계 용자 상환액이 남아있거나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폐차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 후 폐차확인서가 발급되고 이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2기 순창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모집

순창군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안전이 실현되는 정책을 위해 '제2기 순창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순창군이고 평소 양성평등 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관심 있는 순창군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순창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2기 주민참여단은 2년간 활동을 하게 되며, 위촉 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현장방문, 취약지역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평소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많아 각종 정책사업 제안과 주민 홍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지난12일 고창군 관계자들이 대산면 산정리 일원에서 햇고구마 수확 행사를 갖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본격 시행

고창군이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는 지역 주민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창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지역먹거리 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해 민관 협력의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정책의 수립과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113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1호점을 심원면 하천리에 개장해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도 ▲교육·홍보지원 ▲안전·품질관리 ▲기획생산체계구축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식문화개선 및 반가공사업육성 ▲저온 유통체계 저온시설 및 차량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푸드플랜 추진에 탄력을 받아 고창군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군민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